

# 오페라 '원효' 가을무대 올린다

## 국내 정상급 성악가 출연 '화쟁사상과 사랑' 전혜

### 예술의 전당서 26일부터 4일간 공연

역사속 인물들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창작 오페라 '원효'가 12년만에 오는 26일부터 4일간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선다.

이번 무대에서는 '원효'를 완곡한 지휘자 장일남씨가 1971년의 '원효' 초연 이래 24년만에 다시 지휘봉을 잡는다.

광복 50주년 기념, 한국 창작 오페라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오페라 '원효'는 71년 김자경오페라단과 83년 국립 오페라단의 공연에 이어 세 번째 무대.

글로리아 오페라단(단장 양수화)이 창단 4주년 기념으로 준비한 이번 공연에서는 바로

김성길·김진섭씨가 주인공으로 출연, 오페라 '원효'의 무게를 다한다. 또 요석공주 역에는 박경신·신애령(소프라노), 거칠방에는 조연준·백인수(테너), 원효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대안대사 역에는 강태욱·이용찬(바리톤), 의상 대사 역에는 우영훈(테너) 등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 원효의 무애정신과 화쟁사상을 전한다.

4박5장으로 펼쳐지는 오페라 '원효'는 가을이 깊어 풀꽃조차 메마른 요동 벌판을 원효와 의상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당나라로 가던 중 고구려 군사에게 잡혀 오인받아 쫓기던 두 비구는 눈을 피해 옛무덤가에 몸을 숨기고 잠이 든다. 원효는 잠결에 목이 말라 마시려는 해골에 고인 썩은 풀잎을 뒤늦게 알게 되고, 동시에 불도(佛道)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자기의 뜻한바람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무애(無碍)의 뜻을 되새기며 홀로 돌아온 원효는 마침내 가련한 중생의 한 사람인 요석공주의 사랑을 증생구제의 뜻에서 받아 들이게 된다. 그러나 원효는 지난밤의 업연을 스스로 나무라며 요석공주를 빠져 나온다.

은대밭에서 문둥이들을 돌보며 무애를 가르키고 있는 원효와 사랑을 갈구하던 요석은 다시 만난다. 그러나 원효는 요석에게 영겁을 사는 길을 알려주고, 또 다시 길을 떠나는 것으로 무대는 막을 내린다.



◇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재 탐방등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 10월은 문화의 달

'일등나라 일등국민 문화가 만듭니다'라는 가치 아래 서울을 비롯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에서 10월 한달동안 7백 여건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내 한국전통공연예술관의 '전통공연문화상품 공모전'(18일~11월27일), 오는 20일 봉은사를 비롯 각지에서 열리는 '문화재 탐방교실'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 '문화재연구 국제학술회의'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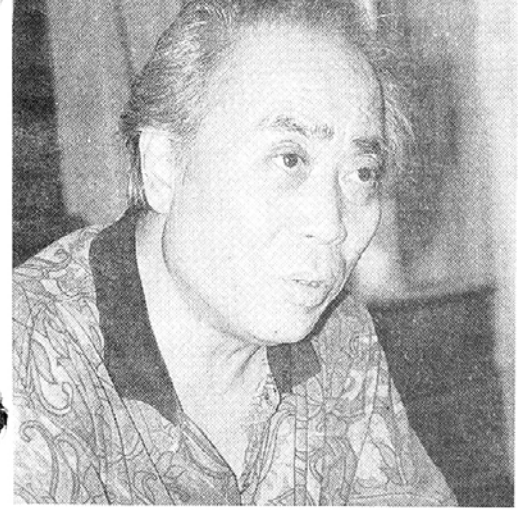
### 문화재 탐방교실등 행사 '7백여건'

런된다.

전국에서 펼쳐지는 문화재 탐방교실은 문화재 탐방을 위한 행사도 많다. 오는 7일까지 관악구청에서 열리는 문화재 사진전시회,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이는 한글 특별전시회(~15일), 경북공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날(20일), 미술의 날(21일), 문화의 날(22일)이 이어지는 문화축제 주에는 동송동 마로니에 공원과 대교로, 예술의 전당 관 전시실에서 선보이는 한글 특별전시회(~15일), 경북공



◇ 초연 이후 24년만에 다시 오페라 '원효'의 지휘봉을 잡은 장일남씨.

## "법정스님 도움으로 불국사서 작곡 완성"

### '원효' 24년만에 다시 지휘봉 잡은 장일남씨

24년만에 '원효'를 지휘하는 작곡가 장일남씨는 초연때의 감동을 새삼 떠올리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구상들에 완성한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는 12년, 직접 지휘하기도 24년만에 다시 무대에 올리게 되었는데 감회가 어떨지.

▲불자인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교인물을 소재로 한 오페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많은 고승들의 예가 발표되지 않아 아쉽기도 한 일입니다.

- '원효'의 작품 구성에 법정스님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경수교수님이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71년 초연을 앞두고 작품을 마무리 할 때지요. 불국사에서 법정스님을 만나 1주일간 함께 지냈는데 스님께서 원효의 삶이 갖는 드라마틱한 요소와 사상이 갖는 무한성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교수도 이런 점에서 도움을 주었고요. 음악적인 완성은 그때 석굴암의 새벽에 불에서 스님들의 염불소리에 문득 가슴이 열려 이뤄진 것입니다.

-대부분 쓰신 김민부씨는 어떤 분입니까.

▲16세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천재작가였는데 '원효'가 초연된 이듬해 자살을 했지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저도 더 많은 고승들을 오페라로 재연해 낼 수 있었을텐데 애석한 일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고승의 일생을 오페라 작품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미친 짓'이란 주변의 소리도 있었지요. 그러나 원효의 일생을 알게 되면 그분께 매료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원효의 실천불교적 삶은 오래도록 우리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고, 그분의 그런 뜻을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전달하는게 저에게 맡겨진 과제라 믿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필선 기자

### 불심시집 <34>

꿈에도 저자거리 가지 않다

丹霞深處一間菴 (단하심처일간암)  
선경의 깊은 곳 한 칸의 암자

猿鶴兼僧但有三 (원학겸승단유삼)  
원숭이와 백학 겸해서 중 다만 셋

魂夢不曾到城市 (혼몽불승도성시)  
꿈에도 성문 안에 가 본 적 없거늘

世緣何事入雲峯 (세연하사입운봉)  
세상 인연 어찌해서 구름 속 들었나 (세연하사입운봉)

### 공연 전서

하고, 박나영, 김보미양이 노래와 피아노 연주를 선사한다.

**원일스님 서화전시회**  
16~20일 온양관광호텔

원일스님(보광암 주지) 서화전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다.

93년 대구시민회관에서 전시한 이후 이번 전시회는 산수, 연꽃 등을 소재로 한 동양화와 관음도, 달마도, 승무도 등의 불화, 서예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또 반야심경 병풍과 소품으로 글씨와 밤서도 전시된다.

### '빛의 작가' 이동철씨 신작전

통의동 진화랑... '만다라' '영겁' 등 50여점

'빛의 작가' 이동철교수(서울대 서양화과)가 지난 4일부터 통의동 진화랑 초대로 신작전을 열고 있다.

88년 개인전 이후 7년만에 갖는 이번 작품전에서 그는 니르바나(일본)의 지고한 상태, 즉 인간의 절대적 인간인 빛을 체험으로서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바탕과 에너지, 리듬이 합쳐진 비

### 배호남씨 '성연의 세월' 미술대전 조각부문 우수상



◇ 배호남씨의 '성연의 세월'.

### 백제시대 절터 발견 능산리, 유물 다양 출토

충남 부여 능산리 유적지에서 백제시대 절터와 금동공예품, 소조불전, 연꽃무늬수막새, 금동제 방울 등 유물이 다양 출토됐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과 라성(사적 제58호)사이의 능산리 일대를 발굴한 결과 백제시대 절터로 추정되는 5개소의 건물터와 유물 다수를 출토

### 해인사 장경각 연내 응급보수

해인사 장경각에 대한 전면보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리국측은 연내에 응급보수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우려의 소리가 높다.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빠른 시일안에 장경각 구조 전 반에 대한 정밀 지층조사를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올해안에 응급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인사의 한 스님은 "현행 문화재관리부상 대장경과 경관의

### 문화재

부여박물관은 또 지난 92년부터 4차에 걸친 발굴 성과를 종합해 본결과 '능산리 유적은 일탈일금당(一塔一金堂)의 기단배치를 이룬 절로 사비도성의 외곽을 둘러싼 부여 라성과 백제 왕릉으로 이어지는 능산리고분군 사이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절터는 능사(陵寺)였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장경각의 보수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교계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화재관리부와 정통사찰보존법은 효과적인 지침을 담고 있기는 커녕 업무지연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본지 46호 15면 참조)

## 책방 여시아문

**'님의 침묵' 이야말로 우리 민족 정서의 근간**

'님의 침묵'은 1926년 초판 발행 이래 70여년간 82종의 시집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님의 침묵'이야말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정신적 지주이며 민족정서의 근간임을 나타내줍니다.

**간행역사에 따라 '님의 침묵' 참뜻 애곡 굴절**

특히 26년과 34년 등 일제시대에 간행된 두 권의 시집에서 10년 단위로 시대별 시집을 검토해 보면, 근·현대 문명표기의 문체와 거듭되는 간행에 따라 '님의 침묵'의 참뜻이 왜곡·굴절되다가 지났음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책방 여시아문 개관 1주년 기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판본 전시회

결실의 계절 가을,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은 각각 창간과 개관 1주년을 맞아 만해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판본 총 82종을 전시, 이 가을의 풍요로움에 그 향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만해사상연구원(회장:전보삼)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1936년 회동서관에서 간행된 '님의 침묵' 초판에서부터 최근 1985년 5월 16일 간행된 '님의 침묵'(문학과 현실사)까지 총 82종의 시집이 전시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스님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그 불꽃같은 민족애에 흠뻑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과 '침묵' 만해 스님 문학의 대표적 정신**

시집 제목이 즐거우게 '님의 침묵'으로(80% 이상) 간행된 것은 만해스님의 문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정신이 바로 '님'과 '침묵'이란 것이 면면히 인식되어 왔음을 입증합니다.

- 전시일정 : 10월 20일 ~ 11월 3일
- 장 소 : 책방 여시아문
- 전시판본 : 1926년에서 1995년까지 총 82종
- 기타 전시물 : 만해스님 영정·만해시비 사진 액자(5점)·'님의 침묵' 전문
- 강 연 회 : 10월 27일 오후 6시 녹수청산
  - 1부-'님의 침묵' 판본 수집의 의의와 과정(전보삼·만해사연구원소장)
  - 2부-'님'과 '침묵'의 현대적 해석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